

‘여수 묘도 LNG허브’ 공사 속도… 탱크 지붕 상량식

사업비 1조4000억원 투입 2027년 완공
연 300만t 공급 2조8000억 생산유발 효과

전남도는 5일 여수 묘도에서 총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허브 터미널’ 탱크 지붕 상량식을 열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약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상량식은 지난해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착공에 들어간 터미널의 핵심 공정인 LNG 저장탱크 지붕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이광일 도의회 부의장, 최정기 여수부시장,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 묘도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은

묘도 간척지 약 27만4380㎡ 부지에 LNG 저장탱크 3기와 10만급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갖추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 중 전국 최초로 투자 실현에 성공한 사례이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터미널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완공 이후 20년간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에 연간 300만t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기업의 에너지 원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현장에서 열린 ‘LNG탱크지붕 상량식’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상량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3000명, 여수시 지방세 연 30억원 등 안정적 세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많은 분의 헌신으로 사고 없이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 다”며 “LNG허브터미널이 안전하고 성공 적으로 완수돼 여수·광양국가산단의 경쟁 력을 높이고,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 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houlbi@gwangnam.co.kr

‘쉬었음’ 인구 1년새 7만3000명 증가

데이터처, 비정규·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청년층 34%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이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경제활동인구(올해 8월 기준)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비중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8.1%), 60대(18.7%), 15~19세(12.9%) 순으로 높았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36.9%), 재학·수강 등(20.2%), 쉬었음(16.3%) 순이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7만3000명이 증가한 264만1000명이다. ‘쉬었음’ 이유는 연령층마다 달랐다.

15~29세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4.1%)이 가장 높았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가 모자라거나,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0세 이상은 ‘몸이 좋지 않아서’(38.5%),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34.0%) 순이었다.

1년 안에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0만1000명(20.4%)으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5.3%), 자기계발·자아발전을 위해(17.1%), 지식이나 기술 활용(4.0%) 순이었다.

희망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93.9%, 비임금근로자 6.2%이며, 세부형태로는 전일제(67.0%), 시간제(26.9%), 자영업자(5.9%), 무급가족 종사자(0.3%) 순이었다.

취업 시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31.0%), 수입·임금수준(27.5%), 자신의 적성·전공(23.8%) 등의 순이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3.6%), 300만원 이상(27.6%), 100만~200만원 미만(21.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비임금근로자는 2007년 조사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근로자(올해 8월 기준)는 65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6%로 0.5%p 하락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으로 5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으로 6만5000명 감소했다.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136만7000명(20.9%), 도·소매업 109만3000명(16.7%), 숙박·음식점업 88만3000명(13.5%) 순으로 많았다.

그중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 건설업(-9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 협회·단체·개인서비스(3만1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림어업에서 줄어드는 모습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비임금근로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삼성전자, LH와 스마트 모듈러 홈 구현

내일까지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 참가

삼성전자는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인공지능(AI) 엑스포’에 참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LH 전시장 내에 1~2인 가구를 위한 51㎡ 규모의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구현했다.

삼성 모듈러 홈 솔루션은 모듈러 건축에 최적화된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솔루션으로,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냉난방공조 시설, 에너지 솔루션, 환기 시스템 등 다양한 기기들이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연결돼 실내 환경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방문객들은 현관, 주방, 거실, 침실, 세탁실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AI 홈 솔루션이 제공하는 쉽고 편리함(Ease) △시간과 에너지 효율(Save) △나와 가족의 건강(Care) △강력한 보안과 안전(Secure)의 4가지 핵심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 모집

전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지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

전남도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도록 ‘석유화학 고용회복 프로젝트’(총 53억원) 중 잔여 예산을 활용해 2차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업종 기업이나 연관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로서, 주소·소득·근로 조건을 충족하는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자다. 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건강복지비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모집과 달리 문자(SMS 수신번호 1666-1840)로 접수한다.

박정현 기자 houlbi@gwangnam.co.kr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처법 대응 완료!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